

# 정유사 공급가 올릴때 잼싸게 인상, 내릴때 버티기 주유소가 소비자 농락?

### 정유사도 국제유가 하락폭 제때 반영 안해

### 휘발유값 1ℓ 당 광주 1,933원·전남 1,926원

시중 주유소들이 정유사가 공급하는 기름값을 내려고 소비자가격을 내리지 않다가 정유사가 올리면 다시 기름값을 올려 소비자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유사가 석유대리점과 지역주유소에 판매한 휘발유의 평균가격(잡정치)은 6월 넷째주에 1ℓ 당 1천764.44원으로 6월 첫째주의 1천780.34원에 비해 15.90원 내렸다. 그러나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6월 넷째주에 1ℓ 당 1천906.83원으로 6월 첫째주 0.25원만 내리 거의 변동이 없었다. 경유도 마찬가지다. 6월 넷째주 정

유사 판매가격은 1ℓ 당 1천746.47원으로 6월 첫째주(1천792.95원)보다 46.48원 내렸지만 같은 기간 주유소 판매가격은 10.51원 내리는 데 그쳤다. 이와 달리 정유사가 판매가격을 올리면 주유소도 가격을 높여서 팔고 있다.

정유사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7월 첫째주 1ℓ 당 1천779.71원에서 둘째주 1천823.11원으로 올라자 주유소 판매가격은 같은 기간동안 1천907.30원→1천922.76원 등으로 급등했다.

경유 역시 정유사가 7월 첫째주에 1ℓ 당 1천764.80원에서 둘째주에 1천817.33원으로 올려받자 주유소 판매

가격은 1천905.93원→1천919.88원까지 올랐다.

주유소들이 정유사 판매가격이 내릴 때 내리고 오를 때 올리는 것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정확한 가격이 월말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광주 A주유소 관계자는 “정유사의 주간 판매가격은 지역 주유소에 파는 가격으로 주유소 대부분은 월말에 정산할 때 정확한 공급가격을 알기 때문에 주간 상황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주유소들이 4, 5월에 손해본 부분을 일부 보전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B주유소측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상황을 반영할 경우 7월 셋째주에 정유사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ℓ 당 50원 정도 인하할 여지가 있지만 내리지 않고 있는데 주유소만 내릴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름값이 오를 때는 얼른 올리고, 내릴 때는 나몰라라 하는 업자들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정부가 일분처럼 정유 및 주유업계간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켜 기름값을 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시간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20일 오전 현재 광주지역의 1ℓ 당 휘발유값은 1천933.2원, 경유값은 1천926.4원으로 휘발유가 휘발유값의 99.64%에 달했다.

또 전남지역의 경우 휘발유값은 1천926.5원, 경유값은 1천923.9원으로 휘발유가 휘발유값의 99.86%에 육박했다. 특히 고흥·곡성·신안·진도·화순 등 5개 군은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질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감축 전력량 만큼 포인트 드려요”

### 光銀, 광주시와 '탄소은행' 운영협약

### '탄소그린카드' 발급 등 온난화 방지

광주은행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광주시 탄소은행'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21일 광주시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 탄소은행 운영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운동에 나선다.

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탄소그린(Green)카드' 발급 등 탄소은행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구 온난화 방지에 공동 노력을 취하게 된다.

특히 광주은행은 각 가정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탄소포인트

를 오는 2012년까지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에서는 지난 5월 이후 2만여가구가 탄소은행에 참여했다. 이들 가정이 '탄소그린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에너지 절약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이 포인트로 적립된다.

예를 들어 참여가구가 전력을 5% 이하 감축할 경우 1kWh당 50원이 적립되며, 5% 초과 감축시에는 1kWh당 70원이 포인트로 쌓인다.

가스는 5% 이하 감축시 1㎡당 12원, 5% 초과 감축시 1㎡당 20원이 각각 적립돼 현금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또 '탄소그린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할부 및 가맹점 마일리지 누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와 광주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준다.

이와 관련, 광주은행은 향후 전 지점의 전광판을 고효율 LED(발광다이오드)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세계 유명 피겨 선수들과 함께..

지난 19~20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 특별링크에서 열린 아이스쇼 '현대카드 슈퍼매치 Ⅷ 2008 슈퍼스타즈 온 아이스'에 참가한 유명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기아차 모하비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아사다 마오, 제프리 버틀 등 유명 선수들은 기아차가 의전차량으로 제공한 모하비와 오피러스를 타고 갈라쇼에 출전했다.

(기아차 제공)

## 우유값 280~370원 오른다

### 내달부터 ... 1ℓ 소비자 가격 2천100~2천200원선

원유(原乳·가공전 우유) 납품 기본 가격이 20%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유가공업체들이 8월중 소비자가격을 15~20% 정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유가공업체에 따르면 인상은 원유 납품가격이 이르면 8월 초 중반에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유업체들은 15~20%로 올

린다는 분위기여서 현재 1ℓ에 1천850원 수준인 우유 소비자가격이 280~37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준에서 가격이 오르면 우유 1ℓ의 소비자 가격은 2천100~2천200원선으로 뒤편에 된다.

인상시기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납품가 인상안이 최종 확정, 고시된 이후인 8월 중이 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으나 업체들의 '눈치보기'가 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유제품 업계에서 7~8월이 더운 날씨와 초·중·고교 방학으로 인해 우유 소비가 떨어지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판매량 감소를 우려해 9월 이후에야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 초 가격을 1ℓ 당 100원 올렸을 때도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은데다 4월부터 증정행사도 중단해 매출이 좋지 않다”며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 가격인상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 11일 타결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켰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9일 노조원 3천953명 중 3천609명이 참가, 찬반투표를 갖고 임단협안은 57.3%, 단체협상에 대해서는 59.2%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금호타이어 노사 양측은 사측이 직원 431명 구조조정안을 철회하는 대신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생산량을 각각 10%와 3% 늘릴 것과 기본급 3%

와 상여금 50%, 휴가비 5만원 등 인상에 합의했다.

이 회사 노조는 급속노조 방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부분 파업을 벌였으며 사측의 직원 431명 구조조정안에 반발, 지난 8일 총파업에 돌입했고 지난 11일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급속노조와 급속노조 기아차지부는 7월 넷째주 '성실교섭 촉구기간'으로 지정, 파업없이 교섭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전남도, 동의나라 등 5개社에 1억씩 지원

전남도는 사업전망이 높은 아이템이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도내 5개 업체를 선정, 각각 1억원씩 총 5억원을 지원한다.

선정업체는 생물산업분야 2곳과 소재·장치산업분야 3곳으로 광양 픽스애택(주), 영암 (주)그린특수산업, 나주 동의나라(주), 여수 씨엑텍, 순천 (주)신안그린테크 등이다.

픽스애택은 파경강관 강합성보강시스템 연구개발과 그린특수산업은

음식물쓰레기·축분 처리를 위한 밀폐형 사료화 및 퇴비화 시스템 개발, 동의나라는 뽕나무 등 천연 미용소재 생산공정개발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개발에 나선다.

씨엑텍은 지하해수를 이용한 해양 미세조류의 대량배양 기술개발 및 산업화, 신안그린테크는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멀티형 공기순환 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을 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

## 조선대 평생교육 과정으로 개편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염홍섭)의 간행행사인 금요조찬연수회가 지역대학의 평생교육과정으로 개편됐다.

광주·전남경총과 조선대(총장 전호중)는 지난 18일 광주무등과 크호텔 컨벤션홀에서 금요조찬연수회 '한국평생학습 경영자과정'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사진)

금요조찬연수회 활성화와 참가자들의 학습동기 부여를 통해 개인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협약식에는 양쪽 기관대표와 관계자, 금요조찬연수회 회원 등 200여명

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앞으로 1년간 50회 강연 중 4분의 3인 38회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서 수여, 도서관 및 의료기관 편의제공 등을 하기로 했다.

금요조찬연수회는 기업인의 경영혁신 지원과 지식정보 습득,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으로 1990년 6월 첫회를 시작으로 18년간 지속해왔으며 최근 900회를 맞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장기-게

www.kjg.co.kr

NAVER

## 무안 장사 (장가게) 직항

매주 일, 목 7회 편성 ₩ 649,000-

7/27, 7/31, 8/3, 8/7, 8/10, 8/14, 8/17 출발

특별한 고품격! 가격은 다운!

## GOLF

4명부터 출발가액 ₩ 899,000-

광주·전남-일 동행여행사 민회, 광주MBC 문화방송 사후실 ■ 문의전화 061-228-6070 ■ 우편 회고의 발송을 받는 광주 MBC 문화방송 노동현씨 방송에 후원사도